

인터뷰 - 도정일 교수

‘우리 삶은 온통 인문학적 물음과 대답’

‘인문학적 가치가 사회 발전 동기 돼야’
정통 인문서, 대중화된 ‘연성’ 인문서 모두 필요
청소년 인문학 교육, ‘한국 출판 사활 좌우’

인문학, 인문서 출판의 당위와 현실에 대한 인문학자들의 생각은 어떤가. 인문학자로서 우리 인문학의 노정을 깊이 성찰하고 있는 도정일 교수(경희대 · 책임은사회문화재단 대표)를 만나 현실을 진단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인문학을 등한히 한 결과”라고 질타하며 “인문학의 가치가 발전의 방향을 인도하지 않는 사회는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막대한 희생을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Q. 과연 지금의 현실(언젠가 스스로 표현했듯이 ‘돈 되는 일만 찾는 우리사회’)에서 인문학의 가치와 용도는 무엇인가.

A. 인문학의 용도나 가치는 경제적 논리로 수량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어떤 분야의 일을 하든 그 기저에는 인문학적 바탕이 있어야 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 인문학이고 인문학 교육이다.

우리 사회는 인문적 바탕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경우가 많았다. 황우석 사태가 좋은 예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윤리적 감각은 선천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사회가 어떤 가치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윤리 감각이 퇴화하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다른 가치들만 중시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윤리는 희생당했다. 우리가 당한 나라 망신, 온 국민이 느낀 배신감, 심리적 공황을 생각해 보라. 이것은 인문학적 가치에 대한 윤리 감각이 완전히 퇴화된 나라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상황을 수도 없이 당하고 눈으로 뻔히 보면서 ‘인문학이란 소용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인문학의 가치와 용도는 시장 가치 이전의 기본적인 가치이다. 인문학적 가치 = 기본적인 가치 = 비경제적 가치

(반경제적 가치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비경제적 가치가 사회발전을 이끌어야 삶이 의미와 도덕성, 건강한 목적을 유지할 수 있고 경제 발전도 가능하다. 그 가치가 발전의 방향을 인도하지 않는 사회는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막대한 희생을 치러야 한다.

인문학적 가치와 용도, ‘시장 가치 이전의 기본’

Q.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인문학을 등한시한 결과인가.

A. 그렇다. 삶은 그 자체가 인문학적 요소로 가득 차 있다. 인간의 삶 중에 인문학적 성격을 갖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인문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 중 하나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다.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면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없다.

그러한 질문이 유도하는 것은 기계적인 반성이 아니다. 자기가 저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의미와 보람은 무엇이며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성

찰하게 하는 질문이다.

‘타자들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이 인문학의 기본적 질문이다.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하고 스스로가 늘 답변해야 하는 질문이다. 인문학의 가치가 기본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인문학의 질문도 기본적이다. 이 기본적인 질문이 인간을 인간이게 한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잊고 살기 때문에 삶이 각박해지고 이해타산이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인문학 대중화 필요...저질의 연성화 인문서는 경계

Q. 인문학 서적들이 연성화되고 있다. 인문서를 빙자한 실용서나 교양서 수준의 책들도 많다. 이런 ‘연성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A. 두 가지 측면의 인문서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소수의 전공자를 위한 연구용 인문서가 있는가 하면 대중을 위한 ‘부드러운’ 인문서도 필요하다. 연구용 인문서는 인문학의 학문 발전을 위해서 나 더 ‘부드러운’ 인문학 서적이 나올 수 있는 ‘베이스’로서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중화 작업도 필요하다. 다만 대중화를 위한 인문서들은 지금 수준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잘 쓰여야 한다. 연성화 인문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짜깁기식의 표절과 성의 없는 저술들이다. 그런 서적들이 많아지면 독서 시장을 타락시키거나 왜곡할 수 있다.

Q. 인문학이 과학 등의 타분야와 융합하는 모습은 바람직한 현상인가.

A. 학문이 전문적으로 분화되면서 학문들 사이에는 서로 소통이 부족해지게 되었다. 과학은 과학대로 인문학은 인문학대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비록 두 학문은 서로 목표가 다르고 연구 대상이나 연구 방법도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적 성찰이 때로 과학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과학의 발견이 인문학에 큰 기여를 할 수도 있다.

이 현상은 사회로 오게 되면 더욱 뚜렷해진다. 서로의 분야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큰 손해

다. 그래서 인문학과 과학 사이에 소통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것이 일반인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인문학 위기, 인문학계 자초’, 비전문가의 엉터리 인문서 출간 금물

Q. 인문학의 위기라는 현 상황에서 우리 인문학과 인문학 출판이 나갈 방향은 무엇이며 인문학자나 인문학 출판계 내부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A.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인문학의 위기를 자초한 부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우선 인문학 교육을 등한히 했다는 것부터가 문제이다. 전문적인 인문학 교육은 열심히 하면서 그것의 사회적 의미나 인간학적 의미를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성해야 한다.

인문학 교육은 인문학과 삶의 관계가 더욱 날카롭게 인식되고 그것이 교육에 반영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시민 교육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시민 교육적 기능과 목표를 벗어난 인문학 교육은 탁상공론일 뿐이다. 타인에 대한 감성을 키우고 유지하는 교육, 이것이 진정한 인문학 교육이다.

연성화된 인문서를 만드는 출판사의 경우,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대중적 언어 감각을 가진 저술가를 투입해서 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저술 인력을 길러내는 첫 번째 책임은 출판계에 있다. 비전문가가 써내는 엉터리 인문서는 차라리 출판하지 말아야 한다. 인문학의 모든 분야에서 다종 다양한 인문학 대중서가 나와야 한다. 그래야 독자의 폭이 커지고 관심분야가 넓어질 수 있다. 또한 중·고등학교의 독서 교육도 출판계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중·고등학교에서 인문서 교육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는 출판계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책 읽는 독자가 줄어든다면 출판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취재 이주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